

행정복합도시의 인구수 및 유형별 가구수 추정에 대한 연구: 1단계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Research on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Estimates of Administrative Composite City

남영우¹ · 권치홍² · 김종립³ · 김용순⁴

Young-Woo Nam¹, Chi-Hung Kwon², Jong-Lim Kim³ and Yong-Soon Kim⁴

(Received August 31, 2016 / Revised October 12, 2016 / Accepted October 13, 2016)

요 약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고 행정복합도시의 1단계 건설사업이 2015년 말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인구 및 가구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 점검하고 향후 공급해야 할 주택의 수 및 유형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업기간 중에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의 인구수 및 가구수를 예측하였다. 인구수의 예측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세종시의 인구증가율과 1단계에서 나타난 계획대비 실적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행정복합도시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수 50만명과 가구수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가구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현재 행정복합도시의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인해 3-4인 가구의 비중이 크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1-2인 가구와 임차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주택공급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합도시, 인구수, 유형별 가구수, 주택공급

ABSTRACT

The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is launched on July 1, 2012, and Phase 1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roject was completed in late 2015. Therefore, it is necessary through the results of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to check whether Sejong city can achieve the target population and number of households by 2030 and to use to determine the number and type of housing to be supplied next. Based on the presented results of the Phase 1 project period, this study estimate the population and number of households in 2030. For forecasting future population the population growth rate seen in the future of Sejong City's population forecast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performance against plans Step 1 were used for forecasting future populatio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s difficult to attract five hundred thousand people and two hundred thousand houses. In the analysis of households by type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s The large proportion of 3-4 person households and high-income earners and Homeowners. But it increase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1-2 people and rent house of the city grows in size and it is likely to change the level of income.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a need to reflect these elements in next housing.

Key words : The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opulation, Households by type, Housing supply

- 1) 나사렛대학교 부교수(주저자: ywnam@kornu.ac.kr)
- 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신저자: yskim@lh.or.kr)

1. 서론

2015년 행정복합도시개발을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반대여론으로 행정청의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복합도시로 추진을 재개하면서 2010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당시 세종시는 (구)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464.80km²((구)연기군 361.40km², 공주시 편입지역 76.10km², 청원군 편입지역 27.30km²)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1개 읍, 9개 면, 1개 동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및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2014년에 도담동, 2015년에 아람동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세종시는 기존의 조치원읍 및 면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동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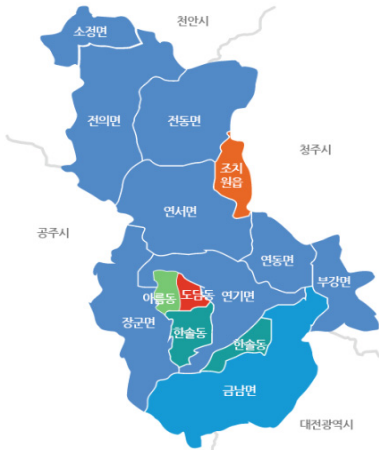


그림 1. 세종시 행정구역

세종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는 2012년 출범이후 인구 및 가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인구수 50만명과 주택수 20만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의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은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단계가 마무리되었고 2단계에서는 인구 30만명, 주택공급 12만호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인구수 대비 가구수를 고려할 때 가구 당 가구원수는 2.5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행정복합도시의 목표

구분	1단계 (07~15)	2단계 (16~20)	3단계 (21~30)
인구규모	15만명	30만명	50만명
주택수	6만호	12만호	20만호

자료 :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15년까지 진행된 1단계사업에서는 이전에 계획된 기관들이 대부분 이전을 완료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시의 기본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계획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향후 유치해야 하는 인구 및 가구수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가능성 대한 점검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구 및 가구수는 향후 공급해야 할 주택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행정복합도시 내 주택이 과잉공급 되어 미분양이 누적되거나 주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업기간 중에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인구 및 세대유치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예상 가구수를 기반으로 향후 공급될 적정한 주택의 규모와 유형 등에 대한 기본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가구원수별, 소득분위별, 점유유형별 가구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행정복합도시 현황

2.1 선행연구 검토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발표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종시의 개발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와 세종시 내 인구 유입의 가능성 및 주거만족도제고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세종시의 개발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김종훈과 박천보(2014)는 세종시 개발이 인접도시인 대구광역시 유성구의 도시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종시에 부족한 인프라인 국제과학융합복합단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유성온천 등을 연계한 리조트 등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세종시 주민들의 대전관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호용과 윤정미(2014)는 Accessibility모형을 활용하여 세종시 인접지역의 인구잠재력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시점인 2013년까지 세종시는 새로운 인구잠재력 지대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세종시는 자체적인 계획인구 도달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요인들의 변화와 주변도시들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임병호 등(2012)은 대전지역 거주자의 세종시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여 양호한 주거환경과 시설이용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 응답자 중 17%가 세종시로 이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내부문제에 대한 연구로 황윤원 등(2014)은 지방이전기관 직원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경영만족, 보상공정성, 조직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광역시형과 신도시형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부성과 정재호(2015)는 세종시로 주거이동을 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경제적 요인보다 교통시설, 의료시설, 근린·상업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발적 이동을 한 집단이 비자발적 이동을 한 집단에 비해서 사회·도시인프라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권오혁(2012)은 세종시로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는 연구를 제시하였고 유영돈과 마정미(2015)는 세종시와 관련된 갈등요인을 보도한 언론의 뉴스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외부지역과의 관계나 이주집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도시로 개발되는 행정복합도시의 수급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세종시 개발의 성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1단계 개발계획의 실행이 마무리되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인구유입규모와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위한 유형별 가구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행정복합도시 인구현황

세종시 출범이후부터 1단계 개발계획이 완료된 2015년 말까지 인구증가추세 및 현황을 분석해보면 세종시의 전체인구는 약 21만 4천명이며, 이중 행정복합도시가 개발되어 동단위로 편입된 지역이 약 11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기타지역은 약 10만호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행정복합도시의 최근 인구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동지역	인구수	18,279	24,231	59,098	115,357
	증가율	-	32.6%	143.9%	95.2%
기타	인구수	97,109	100,384	99,746	99,007
	증가율	-	3.4%	-0.6%	-0.7%
전체	인구수	115,388	124,615	158,844	214,364
	증가율	-	8.0%	27.5%	35.0%
동지역비율		16%	19%	37%	54%
기타 지역비율		84%	81%	63%	46%

자료 : 세종시

동지역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타 지방지역과는 달리 세종시의 경우 평균연령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말 기준으로 동지역의 평균연령은 31세로 47세인 면지역은 물론 38세인 조치원읍 지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합도시의 개발이 계속 진행 중으로 동지역의 인구비

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세종시의 평균연령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3. 연도별·지역별 평균연령

(단위 : 세)

연도	평균연령	평균연령-남	평균연령-여
2012	39.8	38.5	41.2
2013	39.6	38.4	40.8
2014	38	37.1	39
조치원읍	37.8	37	38.6
면지역	46.6	44.7	48.8
동지역	30.9	30.4	31.4

자료 : 2014 세종시 사회조사

현재 세종시 내에서는 인구구조 및 연령별 비중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동지역의 규모는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종시에 대한 인구 및 가구수의 변화는 타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진행될 것이므로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행정복합도시의 장래인구 및 가구수 추정

3.1 분석의 개요 및 기본가정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말 행정복합도시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세종시 개발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30년까지의 인구수를 추정하고 적정 가구원수를 통해서 가구수를 도출하였다. 행정복합도시의 장래인구 및 가구수 추계는 기존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1안)과 1단계의 성과를 반영하고 산정하는 방법(2안)으로 구분하여 실행하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하는 방안은 통계청이 제시한 세종시의 인구성장률을 반영하되 추가적인 인구수의 증가부분이 행복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며, 가구수는 인구수에 적정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1단계의 성과를 고려한 분석은 1단계의 계획대비 실적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3단계까지의 전망을 수정하여 장래 인구수 및 가구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세종시 이전기관의 경우 완전하게 이주를 하지 않고 가족과 떨어져 단독이주를 하거나 통근하고 있는 가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2015년까지 이루어진 행복도시 내 이전기관 종사자수와 2016년에 예정된 4단계 이전기관 종사자수는 총 17,692명이며, 2014년에 이전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약 16%가 단독이주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통근하겠다는 경우도 15%에 달했다.

표 4. 이전기관 종사자 수

구분	이전기관 종사자 수	기간
1~3단계	16,192명	~ 2015
4단계	1,500명	2016
계	17,692명	

자료 :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이 중 단독이주를 계획하는 경우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향후 이주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구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간별 이전기간 종사자수의 16%가 이에 해당되므로 2015년까지 2,591명, 2016년에 242명을 해당시점 인구수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3.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방안

통계청은 2012년에 코호트요인법을 사용한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세종시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행정복합도시의 장래인구를 추정하였다. 통계청에서 적용한 코호트요인법은 인구변동요인별(출생·사망·인구이동) 미래수준을 각각 예측한 후 추계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인구에 출생아수와 순이동자수는 더하고, 사망자수는 빼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다음 해 인구를 산출해 나가는 인구추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추계에 따른 증가율을 앞서 제시한 단독이주자를 보정한 2015년 세종시 인구인 214,364명에게 적용한 후 연도별 증가율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인구수를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발생한 전년대시 순증가인구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세종시내 동지역(행정복합도시)에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2030년의 행복주택인구수를 도출하였다. 증가된 인구수를 동지역에만 반영한 이유는 최근 세종시의 지역별 인구변화에서 대부분의 인구증가가 동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타 지역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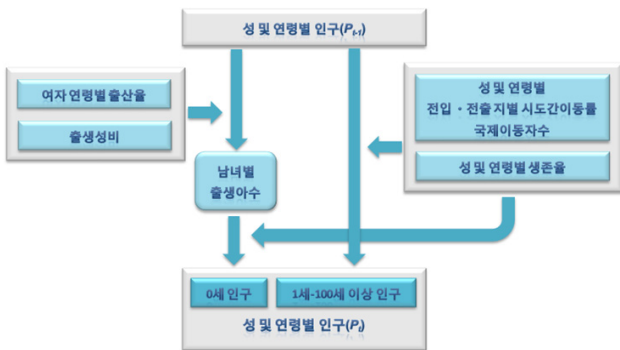


그림 2.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시도별 인구추계 과정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13)

분석결과, 2030년의 세종시의 인구수는 463,813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한 예측치인 427,000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 순증가부분을 모두 배분한 행정복합도시의 인구를 반영하는 동지역의 인구는 2030년에 약 36만 8천호로 산정되어 행복도시계획의 목표 인구수인 50만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세종시 및 행복도시 인구추계 결과

구분	통계청 추계		예상인구 (명)	순증가 인구수 (명)	동지역 예상인구 (명)
	증가율 (%)	통계청 전망(명)			
2015년	47.47	197,000	214,364	-	118,457
2016년	15.18	227,000	246,904	32,540	150,997
2017년	16	264,000	286,409	39,505	190,502
2018년	7.71	284,000	308,491	22,082	212,584
2019년	6.53	303,000	328,636	20,144	232,728
2020년	5.61	319,000	347,072	18,436	251,165
2021년	4.87	335,000	363,975	16,902	268,067
2022년	4.25	349,000	379,444	15,469	283,536
2023년	3.74	362,000	393,635	14,191	297,727
2024년	3.3	374,000	406,625	12,990	310,717
2025년	2.92	385,000	418,498	11,873	322,591
2026년	2.59	395,000	429,337	10,839	333,430
2027년	2.29	404,000	439,169	9,832	343,262
2028년	2.05	413,000	448,172	9,003	352,265
2029년	1.83	420,000	456,374	8,202	360,466
2030년	1.63	427,000	463,813	7,439	367,905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13); 세종특별자치시

표 6. 세종시 및 행정복합도시 가구수 추계 결과

구분	세종시 예상가구수(가구)	행정복합도시 예상가구수(가구)
2016년	98,762	47,286
2017년	114,564	60,399
2018년	123,397	76,201
2019년	131,454	85,034
2020년	138,829	93,091
2021년	145,590	100,466
2022년	151,777	107,227
2023년	157,454	113,414
2024년	162,650	119,091
2025년	167,399	124,287
2026년	171,735	129,036
2027년	175,668	133,372
2028년	179,269	137,305
2029년	182,549	140,906
2030년	185,525	144,186

다음 단계로 도출된 인구수에 적정 가구당 가구원수를 적용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였다. 가구당 가구원수에 대한 조사에서 2013년 세종시 특별센서스는 3.13명, 2015년 주택등록 통계는 2.94명으로 집계되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계획에서는 장기적으

로 2.5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초기에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주가 진행되어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주택공급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아 2.5명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2030년 세종시의 예상가구수는 18만 6천가구로 추정되며, 행정복합도시는 14만 4천가구로 추정되었다. 행복도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수가 20만호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1단계 계획대비 실적을 적용한 방안

행복도시의 1단계 계획대비 실적을 고려한 방법에서는 인구수와 주택공급수를 기준으로 1단계의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실적을 변수로 하여 민감도분석을 실행하였다. 1단계의 계획은 인구규모 15만명, 주택공급규모 60,000호로 2015년 말 기준 주민등록상 동지역 인구와 행복도시 내 주택입주량을 고려할 때 약 80%준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80%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1단계에서 이주기관 종사자의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향후 달성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나 2030 세종시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개발계획이 실현될 경우 추가적인 유입가능성도 있어 기존의 달성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향후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달성률 100%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7. 세종시 및 행복도시 인구추계 결과

구 분	계획	실적	달성률
인구규모(명)	150,000	118,457	79%
주택공급규모(호)	60,000	46,165	77%

주 : 인구규모에는 단독이주가구 포함

자료 :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표 8. 세종시 연도별 입주량

(단위 : 호)

구 분	합 계	공동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2011년	2,242	2,242	-
2012년	4,778	4,778	-
2013년	3,225	3,087	138
2014년	16,696	15,387	1,309
2015년	19,224	17,673	1,551
소계	46,165	43,167	2,998

자료 : 세종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1단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세종시의 개발이 계획대비 80%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면 2020년의 인구수는 24만명, 2030년의 인구는 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인구수를 기반으로 기하평균을 산정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2020년까지는 15%,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5%로 예상된다¹⁾. 각각의 시기

에 연도별 증가율을 적용하여 2030년까지 연도별 인구 및 가구수를 도출하였다.

표 9. 예상 인구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호)

구분	2015년	2020년	2030년
동지역 (계획대비 80%)	118,457	240,000	400,000
연평균증가율	-	15%	5%

산정된 인구수에 대해서 앞서 제시한 바대로 가구원수를 2.5명으로 적용하여 예상가구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현재 실적은 80% 수준이나 세종시 기본계획 상 읍면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의 사회적 유입인구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계획대비 실적의 달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였다. 2030년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약 5,900명, 산업단지조성으로 약 69,000명, 충청권산업클러스터 조성 주요사업으로 약 99,000명 등 약 17만명이 읍면지역에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 부분이 기반시설이 우수한 행복도시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특성상 계획실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 이후 분석에서는 계획대비 80%를 기준으로 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 10. 계획대비 달성률 및 예상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구분	계획대비 80%		계획대비 100%	
	예상 인구수	예상 가구수	예상 인구수	예상 가구수
2015년 (기준)	118,457	47,383	118,457	47,383
2016년	136,424	54,569	142,650	57,060
2017년	157,116	62,846	171,784	68,714
2018년	180,947	72,379	206,869	82,748
2019년	208,392	83,357	249,120	99,648
2020년	240,000	96,000	300,000	120,000
2021년	252,578	101,031	315,723	126,289
2022년	265,816	106,326	332,270	132,908
2023년	279,747	111,899	349,684	139,874
2024년	294,409	117,764	368,011	147,204
2025년	309,839	123,935	387,298	154,919
2026년	326,077	130,431	407,597	163,039
2027년	343,167	137,267	428,959	171,583
2028년	361,152	144,461	451,440	180,576
2029년	380,080	152,032	475,100	190,040
2030년	400,000	160,000	500,000	200,000

1) 연평균증가율은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015~2020년 : $(240,000/118,457)^{1/5-1} = 0.15$, 2021~2030년 : $(400,000/240,000)^{1/10-1} = 0.05$

앞서 분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방법(1안)과 계획대비 실적을 통한 결과(2안)로 장래가구수를 비교한 결과 2025년까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한 가구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2안의 예측을 통한 가구수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안의 경우 인구수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지만 2안의 경우 2021이후 증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개발계획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각 산정방식의 적합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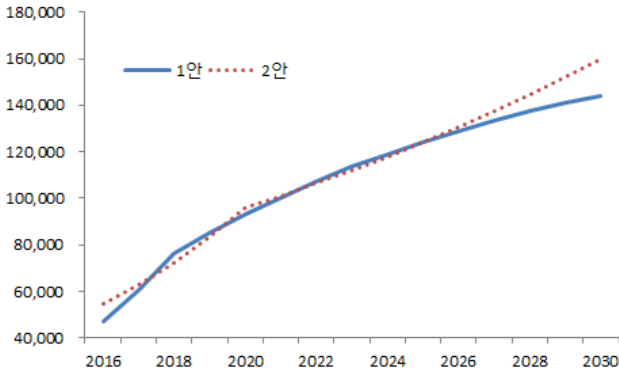


그림 3. 예상 인구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지금까지 제시한 가구수의 추계는 향후 주택수요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향후 공급될 주택의 규모 및 유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유형별 가구수의 추정이 필요하다. 가구원수별 가구수의 경우 향후 공급할 주택규모의 적정비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소득분위별 및 점유유형별 가구수는 임대주택의 공급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형가구수의 변화를 통해서 적절한 주택공급의 시기를 결정하는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가구특성별 가구수 추정

4.1 가구원수별 가구수

행정복합도시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로 가구당 가구원수의 예측을 통해서 향후 공급할 주택의 적정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복합도시의 가구원수별 가구수의 분석을 위해서 행정복합도시의 가구원수가 2030년이 될 경우 이미 개발된 사례인 과천시지역의 2000년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과천신도시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서울의 인구분산과 행정기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므로 행정복합도시와 기능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개발완료 후 약 15년 후인 2000년의 과천이 1단계 개발완료 후 15년이 경과된 2030년을 예측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과천시와 상위행정기관인 경기도 가구원수별 가구비율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2000년 이후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구당 가구원수의 비중이 변화하고 과천의 종합청사이전으로 과천의 특성이 변화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의 경기도와 과천의 가구원수 별 격차를 2030년 경기도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예측과 비교하여 보정된 2000년의 과천의 가구당 가구원 수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2014년 세종시 사회조사의 가구원수별 비중에서 2030년까지 2000년의 보정된 과천의 가구당 가구원수 비중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세종시의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수비율의 변화율을 산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산정된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수 비중을 앞서 분석한 연도별 가구수에 적용하여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산정하였다.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과천시는 경기도에 비해서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계청에서 예측한 2030년 경기도의 가구원수별 가구수에 적용하여 보정된 과천시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비중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보정된 과천시는 1인가구의 비중이 3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행정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천지역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시·별 경기도와 과천의 가구원수 별 현황

(단위 : %)

구분	분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0년	경기도	14.3	16.2	23.2	34.7	11.6
	과천	15.3	15.7	22.4	40.3	6.4
	(과천/경기도)-1	7.0	-3.1	-3.4	16.1	-44.8
2030년	경기도	28.7	31.2	22.7	13.9	3.5
	과천(보정)	30.4	29.9	21.7	16.0	1.9

주 : 경기도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결과이며 과천은 2010년의 경기도와 과천의 비율을 적용하여 보정한 결과임

자료 : 경기도 사회조사, 과천시 홈페이지, 통계청

행정복합도시의 2015년 기준 가구원수별 비중을 세종시 내 동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세종시에 비해서 1-2인 가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고 3-5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행정복합도시로 이주한 가구가 대부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현재 행정복합도시의 가구당 가구원수 비중은 보정된 2000년 과천에 비해서도 1-3인 가구의 비중이 낮고 4-5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시의 기반 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다양한 집단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가구원수별 가구수가 장기적으로 보정된 2000년 과천의 비중으로 변화될 것으로 고려하여 연평균 변화율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2016년

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가구원수별 비중을 산정하였다.

표 12. 시기별 경기도와 과천의 가구원수 별 현황

구분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과천 (보정)	행정복합도시 - 과천	연평균 변화율
1인	32.8%	14.6%	30.4%	15.9%	1.0%p
2인	25.8%	17.7%	29.9%	12.2%	0.8%p
3인	16.3%	22.1%	21.7%	-0.4%	0.0%p
4인	17.2%	33.9%	16.0%	-17.9%	-1.1%p
5인 이상	7.9%	11.8%	1.9%	-9.8%	-0.6%p

자료 : 과천시 홈페이지, 세종시 사회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 행정복합도시의 1-2인 가구수 비중은 약 32%로 나타났으나 2030년에는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증가속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주택의 규모별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주초기에는 가구원수가 많아 중대형을 선택한 가구가 향후 가구원수 감소 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변화하는 가구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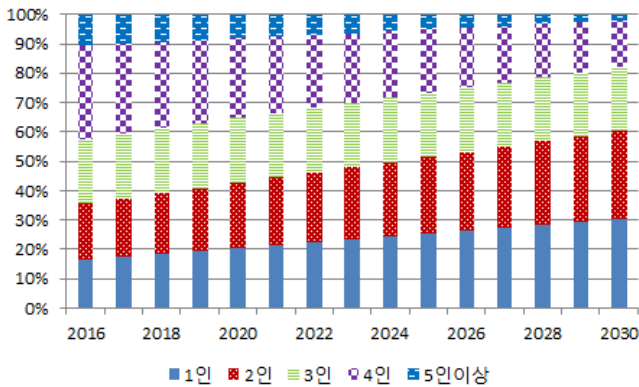


그림 4. 시기별 행정복합도시의 가구원수 별 비율

4.2 소득분위별 가구수

향후 행정복합도시에서 적절한 주택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별 가구수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이다. 소득분위는 주택급여와 임대주택공급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복합도시 내 장래 가구의 소득분위별 비중을 추계하였다. 행정복합도시의 향후 소득계층별 가구규모의 분석을 위해서 2014년 조사된 세종시 사회지표상 가구소득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의 도시가구 소득분위에 대입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 2030년 분석시점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의 분위별 비중이 유지된다는 안과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의 10분위 비율로 수렴된다는 안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통계청 가계자산 조사는 세종시 사회지표와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2014년의 소득분위를 사용하였으며 세종시 사회조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전체가구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통계청 가계자산 조사 상 분위별 소득은 다음과 같다.

표 13. 2014년 기준 소득 10분위

(단위 : 원)

구분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전체 평균	4,302,352	4,704,293
1분위	981,849	1,515,569
2분위	1,938,301	2,418,406
3분위	2,601,814	2,979,388
4분위	3,130,663	3,525,355
5분위	3,659,284	4,025,088
6분위	4,175,958	4,532,156
7분위	4,752,823	5,131,521
8분위	5,519,584	5,894,497
9분위	6,637,739	6,989,380
10분위	9,621,438	10,018,881

자료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세종시 사회지표의 가구당 소득을 세종시와 행정복합도시가 소재한 동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에 소득분위를 부여한 결과 6~7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고 4~5분위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복합도시가 소재한 동지역의 경우 공무원 등 이주기관 종사자의 수가 많아 중상위 수준의 소득분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지역의 경우 전체 세종시에 비해서 1-2분위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4. 세종시 사회조사결과 및 소득분위 배정

구분	세종시(%)	동지역(%)	소득분위
100만원 미만	23.5	3.5	1분위
100~200만원	17.7	6.6	2분위
200~300만원	18.9	14.8	3분위
300~400만원	14.6	19.5	4~5분위
400~500만원	12.3	23.7	6~7분위
500~600만원	6.6	14.7	8분위
600~700만원	3.8	10.7	9분위
700만원 이상	2.6	6.5	10분위

자료 : 세종시 사회조사, 2014

표 15. 행정복합도시 소득분위별 가구수비율의 변화 (도시근로자 평균 기준)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만원 이상
행복도시	3.5%	6.6%	14.8%	19.5%	23.7%	14.7%	10.7%	6.5%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0분위 기준	10.0%	10.0%	10.0%	20.0%	20.0%	10.0%	10.0%	10.0%
편차(%p)	-6.5	-3.4	4.8	-0.5	3.7	4.7	0.7	-3.5
연평균변화율(%p)	0.4	0.2	-0.3	0.0	-0.2	-0.3	0.0	0.2

자료 : 세종시 사회조사 2014, 통계청

표 16. 행정복합도시 소득분위별 가구수 비율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6	4.3%	7.0%	14.2%	19.6%	23.2%	14.1%	10.6%	6.9%
2017	4.7%	7.2%	13.9%	19.6%	23.0%	13.8%	10.6%	7.2%
2018	5.1%	7.5%	13.6%	19.6%	22.8%	13.5%	10.5%	7.4%
2019	5.5%	7.7%	13.3%	19.7%	22.5%	13.2%	10.5%	7.6%
2020	5.9%	7.9%	13.0%	19.7%	22.3%	12.9%	10.4%	7.8%
2021	6.3%	8.1%	12.7%	19.7%	22.1%	12.6%	10.4%	8.0%
2022	6.8%	8.3%	12.4%	19.8%	21.9%	12.4%	10.4%	8.3%
2023	7.2%	8.5%	12.1%	19.8%	21.6%	12.1%	10.3%	8.5%
2024	7.6%	8.7%	11.8%	19.8%	21.4%	11.8%	10.3%	8.7%
2025	8.0%	8.9%	11.5%	19.8%	21.2%	11.5%	10.2%	8.9%
2026	8.4%	9.2%	11.2%	19.9%	20.9%	11.2%	10.2%	9.1%
2027	8.8%	9.4%	10.9%	19.9%	20.7%	10.9%	10.1%	9.3%
2028	9.2%	9.6%	10.6%	19.9%	20.5%	10.6%	10.1%	9.6%
2029	9.6%	9.8%	10.3%	20.0%	20.2%	10.3%	10.0%	9.8%
2030	10.0%	10.0%	10.0%	20.0%	20.0%	10.0%	10.0%	10.0%

현재 행정복합도시의 소득분포는 전체 도시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상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 말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행정복합도시에 유치하기로 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점차 행정복합도시의 특성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복합도시 내 거주자의 소득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분위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소득분위별 가구수비율 및 가구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2030년까지 소득 1,2분위와 10분위 등 양 극단의 소득분위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위와 6-8분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행정복합도시의 소득분위의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낮은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시기에는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점차 대상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공급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가 많지 않은 초기에 공공임대공급 시 미

입주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시기에 매입임대방식이나 주택급여 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점유형태별 가구수

점유형태별 가구수는 지역 내 자가소유와 임대주택에 대한 잠재수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복합도시의 향후 점유형태별 가구규모의 분석을 위해서 2014년 조사된 세종시 사회지표상 점유형태(2013년 기준)와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점유형태별 가구비중 및 가구수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2006년부터 2014년 까지 지역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점유형태별 변화율을 도출하고 2030년까지의 점유형태별 비중을 산정하였다.

세종시 사회지표상 세종시와 동지역의 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행정복합도시가 중심인 동지역의 경우 2013년 현재 자가 62%, 임차가 38%로 세종시 전체에 비해서 자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세종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연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및 기타	일반가구
2010	19,774	5,777	6,140	1,962	33,653
2013	22,794	7,818	11,881	2,030	44,523
동지역	7,001	2,344	1,950	51	11,346

자료 : 세종시 사회조사 2014, 주거실태조사 2010

표 18. 세종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비중

연도	자가	임차
2010	62%	38%
2013	54%	46%
동지역	62%	38%

향후 주거유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6년 이후 주거 실태조사의 시기별/점유형태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임차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임차비중이 가장 높고 충남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세종시의 점유형태별 가구수 비중은 2014년 충청남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전체적으로 임차비중이 증가한데 비해서 행정복합도시 지역에서 임차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행정복합도시에 분양을 받은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내 주택입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지역의 임차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복합도시 내 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 임차가구의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 기간 및 지역별 주거실태 조사결과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전국	57.3	42.7	58.1	41.9	55.7	44.3	55.3	44.7	55.2	44.8
서울	45.3	54.7	45.6	54.4	41.8	58.2	41.0	59.0	40.7	59.3
경기	54.7	45.3	55.2	44.8	50.4	49.6	49.5	50.5	50.0	50.0
충남	66.5	33.5	68.4	31.6	64.2	35.8	66.3	33.7	63.6	36.4

자료 :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점유형태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8년간 임차비중의 변화와 4년간 임차비중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8년간 평균 변동율에 비해서 최근 4년간의 평균 변동율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차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8년 평균증가율과 4년 평균증가율을 모두 적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전국의 경우 2014년의 자가비율이 55.2%이고 아래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자가비율의 변동율이 -0.13%p이므로 2030년에는 53.2%까지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지역별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2030년 지역별 점유형태 비중(4년 평균 변동율 기준)

구분	4년간 변화		연평균 변동	2030년	
	자가비율	임차비율		자가	임차
전국	-0.5%p	0.5%p	0.13%p	53.2%	46.8%
서울	-1.0%p	1.0%p	0.26%p	36.6%	63.4%
경기	-0.4%p	0.4%p	0.09%p	48.6%	51.4%
충남	-0.6%p	0.6%p	0.15%p	61.2%	38.8%

표 21. 2030년 지역별 점유형태 비중(8년 평균 변동율 기준)

구분	8년간 변화		연평균 변동율	2030년	
	자가비율	임차비율		자가	임차
전국	-2.1%p	2.1%p	0.3%p	50.7%	49.3%
서울	-4.6%p	4.6%p	0.6%p	31.0%	69.0%
경기	-4.7%p	4.7%p	0.6%p	40.1%	59.9%
충남	-2.9%p	2.9%p	0.4%p	57.4%	42.6%

행정복합도시의 2030년 점유형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요 지역 중 행정복합도시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의 점유형태 비율을 적용하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가장 인접해 있으나 신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행정복합도시의 특성 상 경기도가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013년 세종시 동지역의 점유형태별 비중이 2030년에 경기도와 같아진다고 가정하고 연평균 점유형태별 비중의 변화폭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8년 변동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8년 임차가구의 비중이 1.29%p증가하고, 4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0.79%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행정복합도시 점유형태비중 변화(동지역)

구분	8년 평균기준		4년 평균기준	
	자가	임차	자가	임차
평균 변동률	-1.29%p	1.29%p	-0.79%p	0.79%p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복합도시의 점유형태 변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점유형태 비중을 산정하고 앞서 산정한 전체 가구수를 적용하여 점유형태별 가구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향후 행정복합도시의 점유형태별 가구유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임차가구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가 거주 가구가 비중이 2028년까지 과반을 넘는 점도 향후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행정복합도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추이

구분	비중(4년 평균기준)		비중(8년 평균기준)	
	자가	임차	자가	임차
2016	59.6%	40.4%	58.1%	41.9%
2017	58.8%	41.2%	56.8%	43.2%
2018	58.0%	42.0%	55.5%	44.5%
2019	57.3%	42.7%	54.3%	45.7%
2020	56.5%	43.5%	53.0%	47.0%
2021	55.7%	44.3%	51.7%	48.3%
2022	54.9%	45.1%	50.4%	49.6%
2023	54.1%	45.9%	49.1%	50.9%
2024	53.3%	46.7%	47.8%	52.2%
2025	52.5%	47.5%	46.5%	53.5%
2026	51.7%	48.3%	45.3%	54.7%
2027	51.0%	49.0%	44.0%	56.0%
2028	50.2%	49.8%	42.7%	57.3%
2029	49.4%	50.6%	41.4%	58.6%
2030	48.6%	51.4%	40.1%	59.9%

5. 결론

2012년 7월에 출범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복합도시 1단계 사업이 2015년 말에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복합도시는 2015년 말까지 인구수 115,357호, 주택수 46,165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계획인 인구수 15만명과 주택수 6만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행정복합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 50만명, 주택공급수 20만명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복합도시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에 있어서 기존의 도시들과는 차별화되므로 향후 공급계획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인구 및 가구수를 추정하고 유형별 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장래 인구규모의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나타난 세종시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1단계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한 2030년 행정복합도시 인구의 추정치는 각각 367,905명과 400,000명으로 기존에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수 500,000만명의 74-8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수의 경우에도 144,186호와 160,000호가 예상되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주택공급규모의 조정에 반영할 필요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별 가구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2030년까지 가구원수와 소득분위 및 점유유형별 가구수의 비중변화를 분석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행정복합도시의 세종시에 비해서 1-2인 가구의 비

중이 32.3%로 낮고 3-4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가구수의 비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대형 규모의 주택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행정복합도시의 기준이 되는 2010년의 과천시를 통계청의 장래 가구원수별 가구수를 기준으로 보정하여 행정복합도시에 적용할 경우 2030년까지 1-2인가구의 비중은 60%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초기에는 3-4인 가구에 적합하나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분위별 가구수에 대한 분석에서 세종시는 소득 10분위 중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비중이 약 10%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6-8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43.2%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복합도시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유입되면 분위별 비중이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복합도시의 자가점유비중은 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측한 경기도 수준으로 변화할 경우 2030년에는 임차가구의 비중이 60%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행정복합도시의 단기적으로 소득분위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나 점차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시기별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복합도시의 장래 인구 및 유형별 가구수를 추정하여 앞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세종시의 개발계획이 초기단계에 있어 다양한 부문의 자료를 활용하기가 어려워 적용이 가능한 일부 지역의 자료와 추세 등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세종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주택 공급방안” 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참고문헌

1. 김부성, 정재호(2015), “세종시로의 주거이동 및 주거만족도 요인분석”, 「부동산연구」, 25(4).
2. 김중훈, 박천보(2014), “세종시 개발이 인접도시 도시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4(2).

3. 김호용, 윤정미(2014), “Accessibility 모델을 활용한 세종시 인접 지역의 인구잠재력 변화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7(4).
4.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5.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의 사회지표」.
6.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통계연보」.
7. 세종특별자치시, 「2030 도시기본계획」.
8. 세종특별자치시, 「2014 사회조사」.
9. 신재욱(2013),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제고 방안”, 「도시행정학보」, 26(1).
10. 임병호, 금기반, 이시영(2012), “대전시민의 세종시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3).
12. 유영돈, 마정미(2015), “세종시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학보」, 59(3).
13.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
14.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0-2035」.
15. 황윤원, 임장근, 송용찬(2014),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지역통합방안 연구”, 「국가정책연구」, 28(4).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 www.naacc.go.kr